



"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 본다"

뜻: 미리 계산하지 않고 한참 뒤에야 결과를 확인해서,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데 어두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이해타산 · 어수룩함 · 지연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봄	에	▽	깐	▽	병	아	리	▽	가	을	에
와	서	▽	세	어	▽	본	다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봄	에	▽	깐	▽	병	아	리	▽	가	을	에
와	서	▽	세	어	▽	본	다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▽			▽				▽		
		▽				▽	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봄] [깐] [병아리] [가을] [와서] [세어] [본다]

웹에서 보기

